

호랑이 군단, 내부 경쟁 시작됐다



KIA 타이거즈
스프링캠프

오키나와=김여울 기자

실전 체제 전환 '전쟁의 시간' 히로시마 연습경기로 몸 풀기 이범호 감독 "프로는 실력으로"

'호랑이 군단'의 전쟁이 시작됐다. 믿음으로 조용히 캠프를 지켜왔던 이범호 감독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20일 일본 오키나와로 건너와 2차 스프링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어바인에서 체력·기술적인 훈련을 하면서 2025시즌을 위한 워밍업을 했던 KIA는 오키나와에서는 실전 체제로 전환해 경쟁을 이어간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2차 캠프가 진행되고 있지만 내부의 긴장감은 커졌다.

일단 실전을 통한 점검의 시간이 펼쳐지고 있다. 22일 히로시마와 연습경기를 치렀던 KIA는 한화 이글스(2월 25일), LG 트윈스(2월 27일), 삼성 라이온즈(3월 2일), KT 위즈(3월 3일)와의 경기를 통해 점검 시간을 갖는다.

이범호 감독은 "보여줘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사령탑이 결과를 이야기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아쉬움은 있었다.

어바인 캠프 중반 많은 비가 이어지면서 예년과 비교하면 실전 준비가 늦어졌다. 몇 차례 라이브 피칭을 하면서 감을 잡는 과정이 있어야 했지만 지난 16일에야 처음 라이브가 진행됐다.

실전 상황에 맞춘 훈련도 부족했던 만큼 히로시마와의 첫 연습경기에서는 아쉬운 수비 장면들도 나왔고, 선수들의 긴장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범호 감독은 앞서 '자율'을 강조하면서 선수들에게 스스로 시즌을 준비하도록 배려했다. 날씨 등의 변수는 있지만 프로는 실력으로 결과로 보여줘야 하는 만큼 이범호 감독은 오키나와에서 준비한 실력을 보겠다는 생각이다.

이범호 감독은 "본인들이 보여줘야 한다.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자율적인 야구를 선호하지만 그 안에서 실력을 내지 못하면, 실력이 더 나오는 선수에게 기회가 가는 것이다. 그런 부분은 선수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잘해야 자리가 나는 것이다"고 준비한 것들을 실전에서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후회 없이 자신 있게 플레이할 것도 주문했다. 이범호 감독은 "긴장은 되겠지만 어떻게 긴장 안 되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계속 긴장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못 보여주면 그런 본인한테 미안하다. 앞으로는 기회가 많이 없다"고 말했다.

시즌이 다가올수록 베스트라인업에 맞춰 준비가 이뤄지게 되는 만큼, 경쟁자들에게는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는 설명이다.

보여줘야 하는 시간이 찾아왔고 여기에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오키나와로 건너오는 과정에서 선수단 규모가 더 커졌다.

일본 고치에서 퓨처스 캠프를 소화하고 있던 외야수 고종욱과 김호령, 투수 홍원빈과 장재혁이 풀



KIA 타이거즈가 23일 오키나와 이시카와 구장에서 팀 플레이 훈련을 하고 있다. KIA는 이날 런다운 상황에 대한 훈련을 집중해서 진행했다.

업됐다. 고치 캠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들은 오키나와에서 경쟁 구도에 바람을 불어넣게 된다.

일단 홍원빈이 스타트를 잘 끊었다. 홍원빈은 23일 진행된 불펜 피칭에서 최고 스피드 152km를 찍으며, 특유의 강속구 힘을 보여준 것은 물론 약점으

로 짚었던 제구에서도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목을 받았다.

말이 아닌 실력으로 보여줘야 하는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부상 없이 기회를 노리는 것이다.

23일 KIA는 비로 야수주 훈련을 다 소화하지 못

했다. 쌀쌀한 날씨 속에 비가 내리자 주장 나성범이 이범호 감독에게 오후 훈련 취소를 요청했다. 건강하게 알아서 잘 준비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는 만큼 이범호 감독은 바로 '오케이' 사인을 냈고, 선수단은 일찍 하루를 마무리했다.

기본 좋은 하프데이가 됐지만 그만큼 선수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은 더 중요해졌다.

이범호 감독이 자율 속에서 프로의 책임감과 실력을 기대하고 있다.

/글·사진=wool@kwangju.co.kr

“타이거즈 ‘V13’ 벌써 기다려집니다”

'진팬' 배우 윤경호·김의성 오키나와 캠프 찾아 응원

타이거즈 '진팬'인 배우 김의성과 윤경호가 'V13' 응원단으로 나섰다.

미국 어바인에서 1차 스프링캠프를 소화했던 KIA 타이거즈는 지난 20일 일본 오키나와로 건너와 2차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 캠프가 꾸러지자 많은 KIA팬이 오키나와를 찾아 훈련을 지켜보고 응원을 보내고 있다. 배우 김의성과 윤경호도 관중석을 지키고 있는 KIA 팬이다.

화제가 된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에서 함께 출연했던 두 사람은 KIA 캠프에서 다시 한번 팬으로 호흡을 맞추고 있다. 22일 히로시마와의 연습경기에서 큰 목소리로 KIA를 응원했던 두 사람은 23일에도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의 훈련을 지켜봤다.

전남 출신 부모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타이거즈 팬이 된 두 사람은 연예계에서 소문난 KIA 팬이다.

김의성은 "부모님이 전남분입니다. 광주일고, 광주상고, 군산상고 명문 팀들 경기 봤었고, 프로 야구 원년부터 항상 타이거즈를 응원했다"며 "전지훈련 꼭 한 번 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쉬는 날이 맞았다. 연습경기 보고, 훈련도 보여주신다고 해서 왔는데 너무 행복하다. 주변 KIA팬



23일 일본 이시카와 구장을 찾은 KIA팬 배우 윤경호(왼쪽)와 김의성이 2025시즌 선전을 기원하고 있다.

들이 다들 부러워하고 있다"고 웃었다.

윤경호도 "아버지가 목포 분이라 어렸을 때부터 해태 경기를 봤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작년에 우리가 통합 우승을 했는데 그 기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활기찬 훈련을 보니까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지난 시즌 우승 여운을 안고 캠프를 찾은 두 사

람은 뜨거운 팬심으로 또 다른 시즌을 기다리고 있다.

김의성은 "어릴 때 해태 타이거즈는 항상 부족하고 안쓰러운 팀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절대 강자 느낌이 있다. 그때 타이거즈도 좋았지만 지금 더 좋다. 당시에는 슬픈 역사와도 연관돼 있고 야구만으로 기뻐하기는 그랬는데, 지금은 야구

만으로 순수하게 응원할 수 있어서 좋다"며 "모든 팬이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선수 한 명 한 명 부상 없는 시즌 보냈으면 좋겠다. 부상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2군 선수들도 모두 부상 없는 충실한 시즌을 보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나는 미미한 팬이고, 타이거즈의 피와 같은 뼈같은 팬들과 새로운 젊은 팬들이 많다. 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음이 돼서 KIA 우승하는 데 다 같이 힘 모으면 좋겠다"고 'V13'을 기대했다.

윤경호는 "전문가 10명이 뽑은 우승후보에 KIA가 압도적으로 1위에 뽑힌 것을 보고 감개무량하다. 탄탄한 팀소속하고 새 외국인 선수 보강되면서 무시무시해졌다"며 "주전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 우승 기운도 좋지만, 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화목하고 행복하게 즐기는 야구를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한국시리즈 라인업소속 나올 때 우승 것발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웅장해졌다. 이제 13개 것발이 내려올 것을 생각하니 벌써 가슴이 뜨거워진다. 그 광경 보고 싶다"며 "다들 같은 마음이지만 개막 기다려진다. 선수들 컨디션도 좋아 보이고 즐거운 야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KIA 타이거즈만의 야구를 기다리겠다"고 KIA의 선전을 기원했다.

/글·사진=wool@kwangju.co.kr

‘K리그 유일 생존’ 광주FC “아침 새 역사”

내달 5일 일본 비셀 고베와 16강전...이정호 감독 “8강에 오를 것”

K리그 유일 '생존팀' 광주FC가 비셀 고베(일본)를 상대로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

광주가 3월 5일(수) 오후 7시 일본 미사키공원 경기장에서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 스테이지 16강 1차전을 치른다. 2차전은 12일(수)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다.

구단 역사상 첫 ACLE을 이룬 광주는 지난 18일 부리람 유나이티드(태국)와의 조별리그 최종

전에 앞서 이미 16강을 확정했다.

4승 2무 2패(승점 14·골득실차 +4)의 전적으로 5위에 오른 광주는 4위 조호르 다를 탁집(말레이시아)과 8강행을 다룰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산둥 타이산(중국)의 기권으로 순위에 변동이 생겼다.

산둥과의 경기가 백지화되면서 광주가 4위로 올라섰고, 5위가 된 고베와의 대진이 완성됐다.

ACLE 16강은 1-8위, 2-7위, 3-6, 4-5위팀의 맞대결로 전개된다.

고베는 국가대표급 선수를 다수 보유한 강팀이다. 광주는 지난 11월 원정경기로 진행된 리그 스테이지 4차전에서 고베에 0-2로 지면서, 3연승에서 질주를 멈췄다.

광주는 앞선 패배를 교훈 삼아 적지에서 8강행을 위한 승리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고베에 대한 이정호 감독의 평가는 '피지컬과 강한 힘을 앞세운 선 굵은 축구'다. 체급으로 상대를 누르는 팀인 만큼 힘과 힘의 승부가 필요하다.

일정 변경이 광주에는 득이 됐다.

1·2차전 홈-원정 경기 순서가 바뀌면서 광주는 홈에서 수월하게 2차전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또 말레이시아가 아닌 일본 고베로 이동하게 되면서, 리그까지 빠른 일정 소화하고 있는 광주 입장에서는 컨디션 관리에 호재가 됐다.

조별리그 결과 광주는 K리그 유일한 ACLE 16강 진출팀이 됐다.

K리그를 대표해 다음 무대를 노리게 된 이정호 감독은 "우린 ACLE 8강에 오르려고 한다. 선수들 예전 좋은 기회"라며 "ACLE엔 유럽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선수들이 많다. 그런 선수들과 경쟁한다는 건 광주가 성장할 좋은 기회다. 우리 선수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고베전 출사표를 던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베컴도 못한 걸 손흥민은 해냈다

EPL 26R 입스위치전 2도움 역대 11번째 70-70 가입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역대 11번째로 통산 70득점-70도움 클럽에 가입하면서 전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손흥민은 23일 열린 2024-2025 EPL 26라운드 입스위치와의 원정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74분을 뛰면서 브레넌 존슨의 선제골과 결승골을 도와 토트넘의 4-1 승리에 기여했다.

이날 승리로 토트넘은 2023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리그 3연승을 거두고 10승 3무 13패(승점 33)로 20개 팀 중 12위에 자리했다.

손흥민은 지난 18분과 26분 존슨의 연속골을 어시스트해 올 시즌 EPL 8·9호 도움을 기록했다.

손흥민의 올 시즌 공식전 공격포인트는 35경기 10골 10도움으로 늘어 개인 통산 다섯 번째로

시즌 두 자릿수 득점-도움도 달성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EPL 23경기에서 6골 9도움을 올렸고,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6경기에서 3골, 잉글랜드축구협회(FA) 컵 2경기에서 1도움, 리그컵(카라바오컵) 4경기에서 1골을 기록했다. 특히, 손흥민은 EPL 통산 326경기에서 126골 71도움을 기록해 70골-70도움도 달성했다.

EPL 통산 70골 70도움은 손흥민이 역대 11번째인 기록이다.

테디 셰링엄(146골 76도움), 웨인 루니(208골 103도움), 프랭크 램퍼드(177골 102도움), 라이언 깁스(109골 162도움), 앤디 콜(187골 73도움), 테니스 베르흐캄프(87골 94도움), 스티븐 제라드(120골 92도움), 티에리 앙리(175골 74도움), 무함마드 살라흐(181골 84도움), 케빈 디브라위너(70골 118도움)가 손흥민에 앞서 위업을 이뤘다. 이 중 현재 EPL에서 뛰는 현역 선수는 살라흐, 디브라위너, 손흥민 3명뿐이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